

2020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20. 5. 29.(금) 오후 4시

■ 주요 회의 내용

▲ 정윤식 위원장

- 5월 15일 16:08~ 여의도 1번지, 토론자 수 확대 검토 프로그램 토론자가 2명만 나온, 이슈에 따라서는 3명 또는 4명 정도로 토론자 수를 확대하고 동시에 프로그램 길이도 비례하여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뉴스는 대부분 토픽이 단신이 많고 코로나 이외에는 다른 방송과 비교하여 단신이 너무 많은 편임. 뉴스의 오락화, 소프트화(연성화) 16:31 이후 스승의 날 화면 매우 좋다고 평가함. 그 이유는 1분 정도이지만 미담 위주의 기사였으며 감성적 접근을 했음. 뉴스 중간에 계절을 상징하는 자연 컷나 음악, 사회성 있는 소프트 화면을 삽입한다면 시청의 몰입에서 오는 긴장감도 해소될 것임, <정치오감> 여의도 SNS 이 프로그램의 여자 아나운서, 기자의 발음 속도 그리고 내용이 좋았음. 이 토픽도 방송시간 및 길이를 확대해도 좋을 것임. 취재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도 줄이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SNS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현안 문제에 대한 각 정당 및 정치인의 관점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5월 22일 뉴스특보 <코로나 동행취재> 19:44~ 코로나 예방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단란주점 점검을 동행취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공무원과 주인과의 약간의 실랑이 장면은 재미도 있었음. 코로나 확진자의 추적 및 동선파악 과정, 마스크의 수급과정, 의사 및 간호사의 고생장면 등 실제 방역당국의 고달픈 현장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난극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리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코로나에 관련된 일일 통계치 기록이나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방역과정의 이모저모를 동행취재하여 전달하는 것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임. <미,중고립 세계 재편 추진> 19:58~ 기자가 잘 보도했으나 향후 이 주제가 빅 이슈로 부상될 추세임으로 전문가 해설이나 토론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함

- 5월 24일 PM 8:00 뉴스특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나경렬기자와 서형석기자가 각각 비슷한 주제를 개별적으로 보도한 것은 매우 좋은 접근방법이며 발상이라고 생각함. 이 주제는 향후 핫이슈가 될 것인 바 1인 기자가 단신으로 보도하는 것 보다는 다소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각각 보도한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함.

- 5월 24일 유튜브 시장 향후 3년 후 8조원 국내 유튜브 시장규모가 8조원이라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출처는 어디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6조시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가 한국 방송광고시장을 지배하여 한국 방송업계가 고사직전이라는 현실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 5월 27일 PM 3:39~ 뉴스 1번지 이호진 기자의 전신이 전면에 오랫동안 등장하여 자신감 있는 멘트를 전달하였고 기사내용도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의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판단함. 기자의 의상을 기자의 개성이나 현장 분위기에 맡겨두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일정부문은 표준화할 것인지?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남녀 앵커 및 진행자의 자율성 확대, 연합뉴스TV 앵커의 젊음. 신선함, 열정, 뉴스 소화력은 국내 방송에서도 탑 수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들 젠틀하고, 품격있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비슷함. 남녀 앵커의 개성과 저널리스트로서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함. 시간대별 프로그램도 유사하고 진행자도 비슷한데 점진적으로 다양성을 부여했으면 함

- 정치인 해설자 섭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낙선하였음. 여 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섭외하여 해설자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sbs의 경우 이철희 민주당 의원을 이미 라디오 진행자로 섭외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음

▲ 조영숙 부위원장

-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이태원클럽 방문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2차, 3차, 나아가 n차 감염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다시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전환의 계기에는 이태원클럽 감염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칫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대나 집단을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도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성애 혐오가 흔한 한국에서 이태원 클럽 발 감염사태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천 명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보도하였고, LA Times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로 한국은 코로나 19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며 국제적 찬사를 받았지만, 대중이 확진자에 대해 '수퍼 전파자'라며 모욕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월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20여 분간 진행된 모 약대교수님이 게스트로 참석해서 진행한 대담과정은 연합뉴스TV가 성 소수자에 대한 보도 시 보다 더 민감하게 인권관점(right-based approach)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게스트는 클럽을 방문한 청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 특히 성 소수자 클럽이었기 때문에 감염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fact에 기반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져 온 동성애 혐오를 심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앵커는 게스트의 답변에 대해 수긍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심각하게 여긴 발언은 프로그램 말미에 게스트가 퀴어 축제를 언급하면서 성 소수자들의 요구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성 소수자들의 요구를 왜곡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게스트는 그동안 퀴어축제를 통해서 성 소수자들이 차별을 두지 말라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조사과정도 이들이 요구한대로 특별취급이 불필요하며, 동등하게 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성 소수자의 요구를 왜곡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주장하는 인권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성 소수자들은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한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되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혐오, 폭력, 차별, 해고를 유발하는 성 소수자를 특정한 "아웃팅(outing)"이 아닌 감염우려가 발생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록 결과적인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왜곡해서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매우 편협하고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 게스트를 통해 언급되도록 하는 것은 연합 뉴스TV가 언론의 책임을 게스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대담에서 의료인이 초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영역이 사회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방면의 이야기가 대담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넘어서는 너무 많은 영역까지 이 분들에게 질문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며 자칫 범위를 넘어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코로나 이후 지난 수개월동안 대다수 게스트가 의료인 그것도 남성의사 일색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코로나 이전에는 대다수가 변호사 일색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 계층, 성별, 연령층으로 게스트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 박성용 위원

- 북한 GP 총격사건 관련, 5월 3일(일) 11:20분경, 뉴스속보로 "북한 GP에 총격..." "남한도 경고사격 및 준비태세", "사태 파악 중"이라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함, 동 시간대에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음(YTN에서는 11:50분경 처음 보도) 다른 방송사에 비해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매우 좋았음, 그러나 이후, YTN에서는 국방부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관련내용을 보도하였는데 비하여, 연합뉴스TV에서는 국방부 등 관련화면 제시 없이 뉴스 진행자가 간단히 보도함(12:12분경이 되어서 보도국에서 GP등의 화면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자가 보도함), 신속보도와 함께, 후속으로 관련내용도 충분히 보도하는 것도 필요함

- 다큐 풍경 관련 5월 5일(화) 12:40분경, 싱그러움 넘치는 땅 "보성"에 대한 다큐 풍경은 보성 지역의 풍경을 잘 보여주었음, 특히, 자막에서 한글 위에 한자도 같이 제공한 것은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 세대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신선해서 좋았음 그러나 방송내용에 황선옥(10년 전 귀촌)의 천연염색에 대한 내용이 상당시간 방영되었는데, 동 프로그램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었음, 동 프로그램은 특성상 그 지역의 풍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지역 풍경과 관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임, 10년 전에 귀촌해서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다소 어색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보도자세 코로나19 관련보도가 연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도 자세는 문제가 있음, 감염자를 비난하는 의미가 담긴 방송내용이나 태도, 확진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방송내용이나 태도, 특정 직종(예 ; 교직원 등)이나 단체(예 : 종교단체 등), 계층(예: 성소수자 등), 지역(예 : 대구 등)을 폄하하는 방송내용이나 태도 여론 물이씩 방송내용이나 태도 등 왜 감염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지하철 등 대중 앞에서 기침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까?

▲ 박성복 위원

- 코로나로 인해 실내생활을 하면 시청률이 높을것으로 기대하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고 요즘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송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음. 넷플릭스나 유튜브 독점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광고시장도 잠식하고 있음, 방송생태계 변화에 대응을 미리 대비 하시기

바람.

▲ 주문갑 위원

- 먼저, 연합뉴스TV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주인 5월11일부터 15일까지가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주간이었습니다. 5월14일 아침 8시 30분경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직후 정말 많은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의 힘을 느꼈고, 시청자위원인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연합뉴스 방송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경제관련 뉴스에 관심이 증가합니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 구독자가 크게 늘었고,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조중동 등 종합일간지는 신문 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신문 구독자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 편성이 정치와 사회면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인 KBS보다 경제뉴스가 적은 듯합니다. 실제 지난 5월27일 새벽 5시30분부터 아침 8시40분까지 뉴스를 분석해 봤습니다. 경제관련 뉴스는 미국경제 재가동 기대감과 노바백스의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돌입 등으로 뉴욕증시가 폭등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우리경제 먹구름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신문에는 코스피지수가 81일만에 2천을 회복했고,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산업이 바닥을 쳤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국제경제뉴스는 주요기사로 나오는데 국내경제 뉴스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정치기사나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사회뉴스도 좋지만 경제뉴스에 대한 편성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유리 위원

- 05월 25일 서울시, 자영업자 최대 140만원 지원...지자체 혼선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연 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고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습니다. 컴퓨터,휴대폰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절차이며 휴대폰 입력시 애러도 많고 대기자가 수천명~ 만단위 이므로 휴대폰을 중간에 타 매뉴로 전환하거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재 이용으로서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다시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정이 넘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내용의 기사가 누락되어 있음.

- 05월 20일 21년 만에 '공인' 뎀 공인인증서...전자서명시장 확대, 05월20일 [현장] 공인인증서21년만에 역사 속으로 1999년 도입돼 금융거래에 필수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은 전국민이 알 권리이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알리미 차원 및 대처방안 관련하여 후속 기사 보도가 필요하다 여깁니다.

▲ 백대용 위원

- 잦아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려워 보이는데 연합뉴스TV가 관련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어 감사합니다.

- 일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동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인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딸과 다툼 초등학생을 스쿨존에서 차로 치어 고의성이 논란이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보행사고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 법의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부모님들(특히 가정주부)이 불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므로 민식이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월에 이루어진 민식이법과 관련된 연합뉴스TV의 보도기사는 10여건이 넘지만 대부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민식이 법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 5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생 2,000명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다고 대답한 비율이 3분의 1을 넘었고 특히 저학년은 41.5%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학부모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 5월의 경우 소비자와 관련된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인 5월 26일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인 새싹보리 분말에서 설탕과 대장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중 어떤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거부까지 이어져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식의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허찬행 위원

-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 사용 필요, 5월 12일 12시 58분 경, "안산시, 외국인에 재난지원금 7만원 지급" 은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에서처럼 '외국인에 재난 지원금 7만원 지급'이라고 한다면, 안산시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안산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오인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관광이나 단기 출장 차원에서 방문한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지도 불분명 합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라 할지라도 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듯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해 다루는 보도는 표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뉴스 지양,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이슈화 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회계 문제와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가 윤미향 당선인 개

인의 비위 혐의나 정의연의 회계 부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조리나 위법한 사안, 특히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보도가치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도 방식입니다. 연합뉴스TV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의연 사태를 보도하면서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정사용 논란을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눔의 집' 후원금도 논란... "할머니 지원 미흡"(2020.5.20.)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후원금 사용 논란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과 관련한 내부고발이 나왔는데요. 막대한 후원금을 쌓아놓고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 기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장과 이사진 등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써달라며 들어온 후원금이 현금과 부동산 합쳐 130억 원이 넘는데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청자 모두가 정의연과 나눔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정의연이나 나눔의 집이 생소한 시청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정사용 논란은 정의연이나 윤미향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예시한 보도에서처럼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정사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을 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리포트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라는 언급이 있지만, 과연 정의연과 나눔의 집이 무슨 관계인지를 해당 보도를 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이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온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맥락을 설명 없이, 정의연, 윤미향, 나눔의 집 문제를 하나로 묶어 오인을 줄 수 있는 보도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의 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처럼, 정확한 보도를 지향하기 바랍니다.

▲ 나지수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기획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시간 등 안내, 광고를 해서 시청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상업광고 뿐만 아니라 자사프로그램도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 광고를 해야 시청자들이 더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의 기적(132회)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시스템 돕기, 순천 권분상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각박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따뜻한 소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줌.
-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 변화는?(130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국제정세, 국제적 리더십 부재, 한국의 역할 등을 기획프로그램으로 보여줌.
- 코로나19와 한국경제 1부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라 경제전망, 사회적 변화 전망을 보여줌. 마윈회장이 사스발병시 온라인시장의 성장을 전망하고 투자한 것과 같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줌.
- 코로나19와 한국경제 2부 :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략은? 방역성공에 따라 마스크, 진단키트, 식료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줌. 현상뿐만 아니라 제목과 같이 '전략'을 보여주면 더 좋았을듯. 조금 더 방향성을 보여주면 어떨까싶음

▲ 서창호 위원

-<5/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획 보도>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연합뉴스tv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획보도는 시의 적절하다고 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음.

-<5/20 과거사법 처리 등 법안 처리 보도>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각 법안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하여 심층 분석 보도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거사법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 보상 의무 조항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국가폭력피해자들이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해야하고 실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등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음.

-<5/26 헝가리 유람선 참사 추모비 건립 보도>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후속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좋으나 단편적인 추모비 건립 소식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날씨보도>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고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는 야외 연결 날씨보도시 기상캐스터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을 보임.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 관리 관련> 시청자게시판이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시청의견을 남기고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게시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